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행복수도 광양' 만든다



광양시가 민선 6기 4년간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와 '대한민국 행복수도 광양'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봉산 전망대에서 바로 본 광양만 전경.

광양시 민선6기 비전 발표



정현복<사진> 광양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운영 방향과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확정된 공약발표와 포부를 밝혔다.

이날 공약사항과 증진과제, 주요사업 추진상황, 지역 현안 및 시장 전반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시장은 민선 6기 시장 목표를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으로 정하고, 시장 방침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행정',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행정'으로 해 정책개발 태스크포스(TF) 팀 발족 등 출범 100일 동안 험없이 달려 왔다고 했다. 그 결과 정 시장은 광양시는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 '대한민국 행복수도 광양'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제1의 경제도시 조성 박차=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인 '동서 통합지대 조성'의 성공적 추진, 탄소 소재·기능성 화학소재 등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추진해 광양에 오면 언제든 일자리 구직이 가능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수도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모든 시책의 중심은 시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언할 수 있도록

'1·1·1 공약'·'10대 공약' 실천 삶의 질 높이기 금융과 물자가 흐르는 경제중심 도시 도약키로



록 관행과 형식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나가고 있다.그 첫 행보로 매일 2회에 걸쳐 시민이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시장을 만나는 '광양 해피데이(Happy-day)'와 주요 사업현장, 집단 민원발생지 등 관내 곳곳을 직접 밟고 방문하는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해 시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친절하고 일잘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인 실사구시 행정을 펼쳐 '정말 달리진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방침이다. 광양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을 6대 분야(Power광양, 산업·경제, 복지·교육, 3

■'1·1·1 공약' 이란

- 시장 월급 1만원 받고 기부
- 예산 1조 달성 경제 활성화
- 일자리 1만개 만들기

지 80만원 이하 공급 ▲기업 153개 이상 유치 ▲포항공단 광양캠퍼스 유치 ▲광양만권 광역 관광 프로젝트 ▲주차장 2000면 늘리기 ▲시민참여 투명행정 추진 등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들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와 자체수입 확충, 신규 세원 발굴에 노력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특히 동서 통합지대 조성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8300억원)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조기에 사업을 가시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영·호남 공동사업으로는 동서 통합대교 건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협력 및 시설개선, '섬진강 하늘길' 동서케이블카 설치,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 섬진강 경관보전 사업 등이다.

광양시 단독사업은 세풍산단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광양 신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 등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영·호남 동서 통합지대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켜 금융과 물자가 흐르는 한·중·일 경제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15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희망찬 도시로 조성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경제청-4개 업체 658억 투자협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지난 14일 ㈜에이유, ㈜승산팩, ㈜금양이앤씨, ㈜신성프라스틱과 658억원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에이유와 ㈜승산팩은 경기 부천과 경남 김해의 업체로 600억원을 들여 울촌 자유무역지역 및 울촌 1산단지역에서 바이오프라스틱소재 제품제조 및 금속포장재 제조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13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금양 이앤씨와 ㈜신성 프라스틱은 울촌 자유무역지역 및 울촌 1산단 지역에 공장 확대이전 또는 신설 이전해 여수, 순천, 광양 산업단지의 연관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연관업체에 자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울촌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장을 신규 투자하는 ㈜에이유는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중국 하얼빈지역의 방대한 옥수수 재배지에서 생산된 1차 가공원료와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단의 원료를 중합해 저탄소 바이오프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 향후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생산 및 제품화가 기대된다. 또 광양항을 이용한 해상수출과 물류 운송 여건이 편리해 입주할 ㈜에이유는 CJ, 사조사 등 대기업에 납품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전남도 정보화연찬회 최우수상



광양시가 지난 14일 목포에서 열린 전남도 정보화연찬회(사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광양시는 '내 손 안 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환경 표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발표 내용은 '스마트 전자회의와 모바일 오피스 구축', '스마트 행정종합관제와 모바일 블로그 운영'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사례위주로 구성해 호응을 얻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전자문서·공무원메신저와 같은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 등 스마트 전자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경찰, 건축자재 상습절도범·장물업자 4명 검거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지난 15일 건축자재를 상습 절취한 박모(25), 차모(22)씨와 김모(19)양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또 이를 매입한 장물업자 장모(52)씨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여수 울촌산단과 광양 세풍산단 일대 건설현장 건축자재를 8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와 이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박 씨는 일용직으로 일했던 건설현장의 휴일 경비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후배인 차씨와 그의 애인 김 양을 끌어들였다. 이후 두 사람은 건축자재를 싸슬이로 차에 실어 절취하고 김양은 망을 봤다. 광양경찰은 주범인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팩스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들과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항감정평가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